

현대 소비자의 소비생활수준에 관한 연구

- 척도의 개발과 적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f Variations in Level of Consumption Life

장 현 선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강사

Chang, Hyun-Sun

Dept. of Consumer Life & Information, Chung Nam University

1. 서론

가. 문제의 제기

현대사회는 소비 사회다. 소비자는 자신만의 소비를 통해 자아와 정체성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소비사회가 진행되는 과정이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소비생활 그 자체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소비생활의 변화를 겪게 되는 과정에서 미처 적응의 준비를 하지 못한 소비자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 자신의 소비수준을 상향 인식하여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소비로 인한 새로운 사회문제를 겪게 된 것이다. 능력에서 벗어난 소비로 인해 개인의 소비문제들이 모여 사회전체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전체의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신용불량자 400만 시대에 이르렀고(은행연합회, 2004년), 개인의 신용을 포기하는 워크아웃 이용자가 과다하여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비수준을 감당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적정치 못한 소비를 통해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택하는 등 그야말로 소비의 문제가 한 개인의 삶 전체까지를 뒤바꾸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여러 소비문제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으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소비자들이 일부 소수대상에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수준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개인의 소비생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척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현 소비생활을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소득에 맞춰 적정하고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자신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소비생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부재하므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진행된 소비수준을 측정하는 선행연구에서는 지출된 화폐의 총량(윤정혜·성영애, 1998)이나 각 비목에 지출된 화폐의 양(두경자,1999) 혹은 소유한 제품의 목록(손상희, 2001)으로 소비수준을 파악하거나, 소유하고 싶은 품목(손상희, 2001)으로 소비표준을 파악하는 등

물리적 잣대로 측정해 왔을 뿐 소비자의 소비생활 전반을 파악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연도별 소비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객관적 경제지표를 이용(윤정혜·성영애, 1998)하는 등 거시적 연구가 진행되어 개인 소비자의 소비생활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 지표는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 소비자의 소비생활 전반을 평가해줄 수 있는 다차원적 관점의 소비생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 지출된 화폐의 양이나 소유품목과 같은 물리적 척도로 파악해오던 소비수준이나 소비표준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소비생활수준이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차원적 관점에서 소비의 내용을 파악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한다.

나.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수준에 대한 선행연구가 경제 지표를 이용하거나 국가 차원의 연구에 국한됨으로써 개인 소비자의 소비생활수준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 소비자의 소비생활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소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둘째, 개인 소비자의 소비생활을 측정할 수 있는 소비생활수준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척도의 구성요소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소비자 정책에서의 활용가치를 높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소비자의 소비생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이를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소비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나아가 자신의 소비수준에 알맞은 소비생활을 유도함으로써, 각 가계의 안정은 물론 국가 경제에 초석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소비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비생활수준의 척도 개발 및 적용은 선행연구에서 시도되어지지 않은 영역이며 개념조차 정립되어있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연구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어 지나 현재의 소비자가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소비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살펴볼 연구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연구문제 1: 소비자의 소비생활수준은 어떠한 항목의 구성으로 측정될 수 있는가? (척도의 개발)

연구문제 2: 추출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소비자의 소비생활수준은 어떠한가? (척도의 적용)

2. 이론적 배경

가. 소비의 개념

소비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다. 또한 현대 소비의 개념은 단순한 지출이상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를 궁극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소비자들이 만족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간과 자원을 결합시키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소비생활수준 관련 개념 및 측정

1) 소비생활수준 및 관련 개념

소비생활수준은 선행연구에서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용어로 개인 소비자의 소비생활 전반을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지표로 정의하고자 한다. 유사한 용어로 소비수준, 소비표준, 생활수준, 생활표준 등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비수준은 현재의 소비의 정도로 현 소비상황을 실질적으로 나타내고 소비표준은 지향하고 누리고 싶은 소비수준이며, 생활수준은 소비보다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서 현재의 소비생활을 포함한 생활전반을 나타내고, 생활표준은 나아가 도달하고픈 최종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소비생활전반을 나타내는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소비생활수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각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생활을 소득에 맞춰 적정하고 특정영역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간주하고자 한다.

2) 소비생활수준 관련 선행연구의 측정방법

소비생활수준은 본 논문에서 처음 시도되어지는 용어이므로 선행연구를 고찰하기 위해 소비수준 및 표준, 생활표준을 다룬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소비수준 및 생활표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소비수준과 소비표준을 함께 연구하거나 과거 국외 연구의 경우 소비수준과 표준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한 연구(Suranyi-Unge, 1977; Hefferan, 1987)들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표준이 현재 소유 또는 소비하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비된 재화의 수준을 나타내는 소비규모를 소비표준과 동일시함으로써 수준과 표준을 구별하지 못하였다(손상희, 2001).

가) 소비수준의 측정

소비수준은 한 시점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거나 누리고 있는 실제적인 소비생활을 나타내주는 개념(Davis, 1945)으로 일정기간동안에 가계가 실제로 획득, 사용하는 총 재화와 용역의 정도로 하나의 지표로 표현되는 현상적 개념이다. 국내의 소비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윤정혜·성영애, 1998)의 경우 우선 소비수준은 도시가계 연보를 기초로 한 지출비목별 측정이 가능하다. 지출비목은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비, 교육비, 광열비, 보건위생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잡비 등이며 측정방법은 지불된 화폐단위를 근거로 산출하는 방법(도시가계연보)이 있다. 또한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

지하는 지출비목별 소비수준을 알아보는 방법(두경자, 1999)이 있고, 각 개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객관적 재화의 보유수준을 조사하는 방법(손상희, 2001)도 있다. 또한 농가경제조사 결과보고가 사용되기도 하는데(최현자, 2001) 이는 농가경제조사를 위한 것으로 일정면적 이상(10a)경지를 가지고 직접 농사를 짓는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농가경제구조 및 경영실태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농가소득, 소비수준, 노동실태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1963년부터 농림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이관 받아 수행되어 왔다.

나) 소비표준의 측정

소비표준은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혹은 소비 형태 면에 있어서 가계가 실현가능성을 내포한 추구하고 바라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수준을 말한다. 한·일·미 가계의 소비구조를 비교하여 한국가계의 소비표준을 설정하려는 연구(윤정혜·성영애, 1998)에 따르면 소비구조의 측정을 위해 한국가계 소비구조의 시계열 분석에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하였고, 일본의 경우 총무청 통계국의 가계조사연보, 미국의 경우 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이용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인지를 이용한 소비표준 측정방법(손상희, 2001)으로는 소비자 개인을 대상으로 가족이 원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재화와 현재는 없으나 언젠가는 꼭 갖추고 싶다고 한 재화의 집합을 소비표준으로 간주하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국외의 소비표준 연구(Suranyi-Unger, 1977)의 측정방법을 보면 가계소지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지출 방식에 있어서 유사한 집단을 규명하고 이들을 각각의 직업계층 내에서 공통적인 소비양식을 고수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표준계층으로 분류함으로써 소비표준을 연구하였다.

다) 생활표준의 측정

또 다른 측정방법은 미국 노동 통계국에서 실시한 방법(Hefferan, 1987)으로 4인 가계의 총 소비지출 수준의 중앙치를 미국 사회에서 전형적인 가족의 생활표준이라고 보고, 이를 보편적 가족표준으로 간주하였다. 그 외 생활표준에 대한 연구는 설화 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연구(김기욱, 1997)가 있는데, 연구대상이 직접 이야기를 엮어나가도록 하는 설화 법을 사용하여 미국에 단기 방문한 한국인 12명을 대상으로 소비생활이야기에 나타난 생활표준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생활표준을 질적 접근법으로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소비수준 및 표준, 생활표준 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저마다 다른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 선행연구의 제한점과 소비생활수준의 측정

소비생활은 소비지출 개념 이상의 통합적인 개념이다. 앞서 본 연구에서 소비의 개념을 정의한대로 소비란 궁극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소비자들의 만족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간과 자원을 결합시키는 모든 활동이라고 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소비란 단지 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의 절대액수로만은 소비생활 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 총 지출액수는 적정하다고 하여도 특정 비목에 치중한 소비생활을 한 나머지 다른 비목의 소비상태가 불량하다면 소비생활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 지표는 소비생활 전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단일 지출액이나 소유 품목으로 소비생활수준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차원적인 개념의 소비생활을 단일 차원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으며 그 측정 자체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은 그 측정에서도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일차원의 척도는 어느 한 단면만을 나타낼 뿐 소비생활 수준 전반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소비생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적 관점의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및 항목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대의 소비자에게 있어 소비는 과거와 다른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 의미가 확대·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의 의미의 확장에 따른 소비생활수준의 새로운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새로운 소비생활수준의 척도에는 소비지출이나 소유품목과 같은 물리적 요소를 통한 소비생활의 포괄적 상황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현재의 소비가 소득에 비해 적정한 소비인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소비인가, 현대 소비자의 소비욕구를 충족하는 소비인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 건전하고 계획적인가 등의 다양한 차원의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생활수준을 구성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은 여러 차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1) 소비의 지출성

소비지출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소비수준과 유사한 개념으로 각 가계의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대체로 통계청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가구가 보유한 재화의 품목을 조사하여 소비수준을 조사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소비지출은 소비생활수준 전반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총 소비지출액과 비목별 소비지출 비중으로 파악할 수 있다. 총 소비 지출액을 파악함으로써 가계의 전반적 소비생활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비목별 소비 지출액을 비교함으로써 가계의 소비지출 성향을 파악하고 각 가계의 소비지출을 비교할 수 있다. 총 소비 지출액은 절대적 지출액수를 산출하여 측정하고, 비목별 지출액은 지출된 총 소비를 각 하위 비목으로 나누어 비목별 지출액을 파악한다. 이러한 객관적 기준을 비교함으로써 가계의 적정한 소비지출정

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

가) 각 가구의 총 소비 지출액: 절대 액수를 측정

나) 비목별 소비 지출액: 하위 비목별(기존 논문에서 분류 해 놓은 소비의 하위 비목을 산출하여 비목별 지출액을 파악)

2) 소비의 적정성

소비적정성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소비지출 정도가 적정인가에 관한 개념이다. 소비생활이 바람직한 선에서 유지되어 적정선을 지키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수준의 적정 소비선이란 각 소비자의 주관적 가치로 절대적인 적정선을 도출하여 합의에 이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여 적정 소비 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항목에 대한 요인이 추출된다면 개인 소비자의 소비지출 정도에 대해 현재의 소비수준이 적정인가에 관한 대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인 소비 적정선의 개념 제시

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을 면접법으로 조사하여 소비 적정선의 개념을 도출

3) 소비의 균형성

소비균형성은 소비지출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비목 간에 균형을 이루는 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같은 액수의 총 지출을 하더라도 그 비목간의 균형이 어떠한가에 따라 소비생활수준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총 지출의 액수는 적정선에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위 비목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소비생활 수준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생활수준의 균형성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를 모색할 예정이다. 소비 균형성은 소비지출 내역의 비목 간 분산도 혹은 역으로 집중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소비 지출 내역의 비목 간 분산도 파악

나) 소비 지출 내역의 비목 간 집중도 파악

4) 소비의 충족성(만족성)

소비 충족성은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가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소비가 궁극적으로 소비욕구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때 소비자는 소비생활을 통해 욕구충족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요인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대 소비자는 소비를 통해 궁극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충족되지 못한 욕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정적인 방향으로 소비생활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소비로 인한 병리적인 문제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겠다. 소비 충족성을 이루고 있는 항목을 추출할 수 있다면 소비생활을 통한 소비욕구의 만족 정도를 파악 및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자의 소비욕구가 만족된 정도를 소비 충족성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지표를 통해 소비생활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 가) 각 가구 및 소비자는 현재의 소비생활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 나) 소비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만족을 이루고 있는가?
- 다) 소비로 인한 불만족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 라) 소비로 인한 불만족으로 인해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는 없는가?

5) 소비의 안정성 측면

소비 안정성이란 소득의 향상성과 안정성을 통해 현재의 소비생활수준의 정도를 파악하는 개념이다. 향상성이란 일정한 소비생활수준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말하며(Briggs, 1967) 안정성이란 경제적 안정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계의 소비생활수준의 상태가 안정적인지를 파악하는 지표이다. 현재의 소비생활수준을 파악함과 동시에 개인 및 가구의 향후 소비생활수준까지를 진단 및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일정한 소득, 즉 경상소득을 통하여 현재의 소비생활수준의 상태를 파악하고 안정성 여부를 진단할 수 있겠다. 안정된 소비생활수준을 보이는 소비자라면 소비로 인한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생활수준의 상태가 안정되었는가를 파악하는 항목으로써 소비 안정성을 측정하여 일정기간동안의 소비생활수준을 비교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 가계의 소비생활수준의 안정성 여부를 진단하고자 한다.

- 가) 현재의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각 가계 및 소비자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는가?
- 나) 안정적인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 다) 안정성의 개념에는 어떠한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6) 소비의 건전성(사회성)

소비 건전성이란 현대 소비자가 소비에 있어서 효용성 이외의 사회 및 문화에 의해 동기 부여 받아지는 소비의 측면을 말한다. 경제적 효용이나 이성적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동인이 존재하며 이를 분석함으로써 소비생활 자체의 건전성 문제를 파악할 수 있

다. 현대 소비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병적인 과잉 소비현상, 명품 집중현상, 목적이 뒤바뀐 소비행태 및 신용불량자 300만 시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현대 소비의 설명변수라고 할 수 있다.

가) 소비의 병리적 행동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나) 현대의 소비자들만이 지닌 소비행동 및 소비생활은 어떠한 요인이 있는가?

다) 현대 소비자들의 효용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소비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7) 소비의 계획성(준비성)

소비의 계획성이란 현대 소비자 개인 및 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비가 즉흥적 판단이나 충동적 구매가 아닌 계획되고 준비된 것인가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소비품목 및 항목에 따른 계획성 여부 및 준비성을 측정하여 현대 소비자들의 소비상태 및 소비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현대인의 소비가 단지 현재만을 위한 단편적인 소비가 아닌 미래를 계획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 및 척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일한 소비품목 및 항목이라 하더라도 소비 계획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따라 소비행동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의 소비 계획성은 바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가) 현대의 소비자들은 사전 계획을 통한 소비를 실천하고 있는가?

나) 사전 계획 없는 소비로 인하여 병리적 소비행동이 야기되는 것은 아닌가?

다) 현대 소비자들의 소비로 인한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동인이 아닐까?

3. 연구방법

가. 소비생활수준 척도의 개발

1) 척도의 구성요소 개발: 연구문제 1

본 연구는 소비생활수준 척도의 개발이라는 첫 번째 연구 문제아래, 소비생활수준을 구성하는 요소를 찾아내어 척도를 구성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다차원적인 측면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의 구성요소 혹은 차원을 분석하기위해 문헌연구 및 전문가집단을 통한 델파이 조사(Delphi Method)를 실시 하고자 한다. 델파이 조사는 미개척지의 분야에 도전할 경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추출할 수 있는 구성요소가 없기 때문이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함으로써 신뢰성 있고 이해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현재 소비자학 관련학과에 재직 중이거나 강의중인 소비자학 전공 교수 및 강사 30인으로 구성된 응답자로부터 3차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생활수준에 관한 척도의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소비생활수준에 관한 최종 척도를 완성한다. 이렇게 완성된 척도는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서 타당성이 확보된 것이지만 그 신뢰성

은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크론바하의 알파 계수를 이용하여 척도의 내적 일관성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 척도의 적용을 통한 소비생활수준 측정: 연구문제 2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 조사를 거쳐 확정된 척도 항목을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실증조사를 함으로서 소비생활수준을 실제적으로 측정하고 파악하고자 한다.

3)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소비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 인구학적 변인이 소비생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옥(1997), 우리나라 소비자가 추구하는 생활표준: 질적 접근법 이용한 소비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5-32.
- 두경자(1999), IMF 관리체제 이전 이후의 가계소비수준 회복정도와 영향변인-주부의 주관적 인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87-97.
- 손상희(1998), 농촌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주관적 소비수준, 한국생활과학회지.
- 손상희(2001). 한국가계의 소비수준 및 표준: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의 실현 모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59-277.
- 윤정혜·성영애 (1998). 한·일·미 가계의 소비구조 비교를 통한 한국가계의 소비표준 설정 방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55-168.
- 최현자 (2000),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의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67-183.
- Davis, J. S. (1945). Standards and Content of Living,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5, 1-15.
- Hefferan, C. (1987). Family budget guidelines, Family Economics Review Vol. 4, 1-9.
- Surany-Unger, T. Jr. (1981). Consumer behavior and Consumer Well-Being: An Economist's Diges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8, 132-143.